



(4) 삼도2동 빈점포 창작공간

1 삼도2동주민센터 인근에 조성된 트리트먼트 포토존. 날갯짓하려는 흰부엉이를 형상화했다.  
 2 그림책갤러리 제라진에서 진행된 최민지 작가의 그림책 주제 전시.  
 3 김영춘 작가의 요보록소보록 내부.  
 4 조운득 작가의 가마엔조이.

### 병원이 떠난 거리에 등지 튼 예술인들

한때 그곳에선 의뢰기를 팔았다. 자그마한 분식집도 있었다. 미용실, 단란주점, 철학관, 세탁소, 식당, 보청기 판매점도 어느 시절 그 거리를 채웠다. 하지만 그것들은 차츰 세월 속으로 사라져갔다. 큰 병원이 다른 마을로 옮겨간 영향이 컸다.

오래도록 비어있던 그 일대 건물에 온기를 불게 만든 건 예술인들이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제주시의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잇따라 빈점포에 등지를 틀었다.

이 사업은 제주대병원 이전으로 공동화된 원도심 빈점포를 활용해 예술인 창작·전시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활발한 예술 활동을 이끌고 유동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 기획됐다. 삼도2동 문화거리에서 생겨난 빈점포를 제주시가 임대해 공모를 거친 예술인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레지던시 형태의 사업이다. 2014~2019년 1기 활동이 마무리됐고 2020년부터는 2기 입주예술인을 선정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빈점포 창작공간이 들어선 삼도2동 문화거리의 관덕로8길 22-중앙로14길 30-1 지점을 포함해 4개 구간 총 673㎡에 이른다. 제주시는 현재 문화거리에서 흩어진 12개 빈점포를 요보록소보록, 가마엔조이,

제주대병원 이전 후 쇠퇴 2014년부터 빈점포 임대 제주시 입주 임차료 지원 향후 공용 창작공간 설치 건물주 상생계약도 추진

그림책갤러리 제라진, 그릇이야기 최작, 굵자살롱, 아트세니 등 14팀(명)의 창작공간으로 지원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공예 4곳, 회화 3곳, 공연·음악 2곳, 아트숍 3곳 등으로 나뉜다.

지난해 제주시의 학술 운영 결과가 이 사업에 대한 예술인과 지역민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그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실제 입주작가 중에는 방문객 접근성이 좋고 홍보 기회가 늘어난 점을 들며 빈점포 사업이 작업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 관리할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용 공간, 공동 작업실, 커뮤니티 공간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별도의 운영센터가 설치되

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시는 이같은 의견을 일부 반영해 내년에는 입주작가 임차료를 비롯 공용 창작공간, 아트매니저 채용 등을 위해 총 1억7000만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빈점포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건물주와 면담해 3~5년 장기계약과 임차료 동결에 나서는 상생계약도 추진한다. 사업이 성과를 거두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임대료의 상승, 건축물의 운영관리, 건축주로서 기본시설의 구비와 제공, 문제 발생 시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는 판단에서다. 상생계약은 공극적으로 건축주에게도 이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정적인 계약을 통해 임대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제주시는 올해부터 입주 예술인들이 입주공간 건물주와 계약 하도록 했고 자연재해나 재난 발생 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주와 입주자가 모두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1년 단위 평가 후 재입차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종전과 달라진 내용이다. 지금까지 제주시가 이 사업에 임차료 등으로 투입한 예산은 매년 1억1000만원 내외로 총 7억2500만원에 달한다.

글·사진·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탐라문화제 비대면·거리두기 축제로

제59회 축제 10월 7~11일 온라인상 제주어 축제 등 새별오름 주차장 일대선 승차 콘서트·영화관 운영 소규모 찾아가는 공연도



탐라문화제 개막 전 소규모 공연으로 진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1962년 제주예술제로 출발해 1965년 한라문화제로 개칭했고 2002년 지금의 명칭으로 바뀐 탐라문화제. 제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축제로 명맥을 이어왔지만 시련도 있었다. 1970년 9회 한라문화제는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한가하게 축제를 치를 때가 아니다”란 소리를 들었고, 새마을사업이 한창이던 1973년 12회 한라문화제는 항토축제 경시 속에 행정 당국의 행사 중단 요구가 있었다.

59회째인 올해도 위기가 찾아왔다. 코로나19 여파로 연초부터 제주의 이름난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탐라문화제의 앞날도 안갯속이었다. 이에 주최 측인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제주예총, 회장 김선영)는 비대면·거리두기 행사로 방향을 틀었다.

제주도와 제주예총이 주최하고 탐라문화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탐라문화제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 치른다. 온라인 제주문화축제(제주어 축제, 무형문화재

축제), 공연문화축제(탐라 드라이브 인 영화관·콘서트,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온라인 참여문화축제(탐라는 북주맹기, 탐라문화 그리기·서예공모전 등), 온라인 국제문화교류축제, 미디어아트전(산지천광장 ‘탐라의 시간’), ‘탐라스튜디오-TV 탐라가 탐나’(JIBS 방송 스튜디오)로 구성됐다.

이 중에서 새별오름 주차장에서 마련되는 ‘드라이브 인 콘서트’는 도내 예술단체 47팀을 위주로 차 안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유명 소리꾼 이희문이 참여하는 ‘오방신과 발광’이 피날레를 장식한다. ‘드라이브 인 영화관’은 매일 밤 10시부터 상영 일정이 잡혔다.

‘찾아가는 탐라문화제’는 사전 행

사로 9월 11일부터 시작돼 이달 10일까지 금·토요일마다 계속된다. 사전 신청한 낙천아름곳마을 등 10곳을 방문해 44개 공연예술단체들이 풍물연주, 무용, 연극, 퓨전국악 등 11회에 걸쳐 소규모 공연을 벌인다.

개막식은 첫날 오후 4시부터 무관중으로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전설의 피리인 ‘만파식적’에서 따온 ‘탐라식적’이란 이름으로 탐라문화제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근심, 걱정이 사라지길 바라는 염원을 퍼포먼스 등에 담는다. 개막식은 녹화 중계된다. 축제 일정, 사전 참가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예총 홈페이지(www.jeuart.or.kr)나 SNS 채널(www.facebook.com/yecheon.jeu) 참고. 진선희기자

### 문화가 쏙지

#### 예담 ‘숨비소리...’ 공연

제주무용예술원 예담(대표 고춘식)이 국립무형유산원이 주최·주관하고 전주시가 후원하는 2020대한민국무형문화대전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달 27일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무관중으로 ‘숨비소리: 제주해녀의 숨결에 실린 푸르고 깊은 노래’(총연출 고춘식, 대본 전혁준)를 공연했다.

이번 무대엔 예담 단원만이 아니라 고산어촌계 해녀 공연단인 ‘차귀도해녀소리보존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의 김영철 이수자, 이원경, 김평석, 예술공간 오이가 참여했다. 공연 장면은 11월부터 제주무용예술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공개된다.

#### 하나아트 ‘해녀...’ 음악극

제주국악연희단하나아트가 2020해녀문화 우수예술창작 지원사업으로 음악극 ‘해녀: 들숨·날숨’(연출·구성 고석철)을 국악연희단하나아트 유튜브 채널로 선보이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제주바다를 배경으로 해녀를 주제로 구성된 음악을 영상에 담았다. 모두 4개의 마당으로 구성됐다. 고석철(피리, 연물북, 손징), 오승진(대금), 고은경(해금), 부혜미(가야금·보컬), 김수하(신디사이저), 김현화(구름), 이성희(장구·심벌), 강경주(모듬북·원드차임), 김만호(대북·팽과리·허벅장단)의 연주에 배우 현애란의 연기, 윤정애의 춤이 더해졌다. 작곡은 정원기, 유찬미씨가 맡았다.

#### 제주팝스 음악극 ‘파도의 생’

제주팝스오케스트라가 2020해녀문화 우수예술창작 지원사업으로 제주해녀 양의현의 일생을 다룬 이미지 음악극을 온라인 공연으로 선보인다. 이달 6일 제주아트센터에서 무관중 공연으로 녹화해 20일 제주팝스오케스트라 유튜브 채널로 공개할 예정인 ‘파도의 생(生)’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제주시 구좌읍 출신으로 일본 오사카에서 생을 마감 때까지 두 번의 결혼과 이별을 겪었고 아들은 북한으로 떠나보내야 했다. 제주팝스는 근·현대사의 아픔을 온몸으로 증거하면서도 당당하게 생을 헤쳐간 양의현이란 인물을 통해 제주해녀와 해녀문화를 이야기한다.

잔디·돌담·다육식물·선인장  
**착한정원 · 착한다육**    **조경설계 시공 감리**    **착한가격!!!**

# 제주자연조경

실내조경, 정원수전정·병해충방지

주택, 별장·펜션조경, 잔디·잡초관리

연못, 인공폭포, 잔디, 조경수, 돌담

**정원, 조경의 모든것**    문의 | TEL : (064)748-0014, FAX : (064)746-9888, H·P : 010-3698-6465